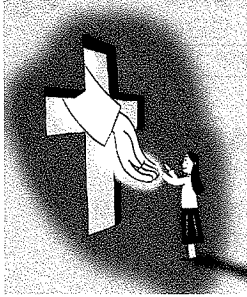


◀기쁜 우리 날들▶ 그 기도에 울었습니다

김남준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어떤 기독교 잡지를 읽다가 그 만 울고 말았습니다.

노동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전도자가 된 사람의 기사였는데,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저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기 때문입니다.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감옥까지 갔다 온 그 사람은 그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 있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철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끝내며, 희망 사항을 묻는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감생심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써 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른 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읽으면서 사명감도 없이, 감사도 없이, 냉랭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았기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남아 있지,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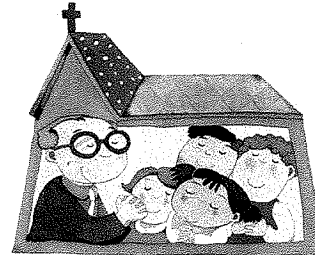
◀고향의 이름▶ 연 탄 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산림녹화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서 그때부터 온 나라안의 골목담장에는 연탄재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한 덩어리 들고 바닥에 던져 깨면 미끄럽던 길도 어느새 안전했습니다. 겨울이면 신문마다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끊이지 않던 시절, 연탄가스엔 김치국물이 최고라 여기며 겨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8권 28호	기초성경공부미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7월 16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다시 목사로 살아야 한다면

김성국



좀 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말씀 한 절 묵상하다 가슴 벅차 올라오면
그제서야 그 말씀으로 강단에 올라 전하겠습니다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내겠습니다.
내 삶 정지시키고 무릎 꿇을 때
세상 향한 내 눈 멈추어지고
하나님 향한 내 마음 열리는 것 보았습니다.

좀 더 행복한 추억 많이 갖겠습니다.
무기력해진 신앙곡선에 서졌을 때
장작 난로에 떡 굽어 먹던 겨울 예배당의 추억이
광야의 지팡이 되어 나를 세워 주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나 마저 무표정으로 대할 때
기대고 싶었다가 무너지듯
돌아서던 교우의 얼굴을 떠 올리겠습니다.

좀 더 참는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왜?” 라기 보다는
겸게 탄 마음을 주님의 심장 옆에 놓겠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동네를 즐겨 찾는
자유로운 방랑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계신 주님을 느끼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매일 저녁
모든 근심걱정을
하나님께 넘겨 드려라
하나님은 밤에도 안 주무신다

◀인품따라 행하기▶

운전하다 무례한 일 당했다고
속상해 하지 마라
운전중 정중한 대접을 받으려면
경찰차를 모는 수 밖에 없다

창립7주년 감사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Calvary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 도 자
 Proclaim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 송** 248장 다 같 이
 Hymn
기 도 정희자 권사
 Pray

임 직 식

권 사:윤주야.이금선.임병숙.임혜자
 안수집사:고성일.권용일.백제성.양경배.이근평
 정관영.조용건.최득수.현석호
 장 로:박일영.장현중.최재학
임직기념물봉헌 자필 성경 임직자 대표
찬 송 355장 다 같 이
 Hymn
성경봉독 마태복음 2:12-13 인 도 자
 Scripture Reading
설 교 예수 잘 믿는 교회 김성국 목사
 Sermon
성가대 찬양 (1)축복 (2) 할렐루야 나무심자가 성가대
 Choir
찬 송 246장 다 같 이
 Hymn
헌금 기도 인 도 자
 Offering Pray
응 답 송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Response Song
축 도 김성국 목사
 Benediction

◆7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헌금위원	차량	안내
2	장현중		최재학	본당:노은숙
9	정덕수		장현중	이금선
16	정희자	예배부장	권용일	
23	최재학		고성일	현관:정덕수
30	현석호		백제성	최재학

◆7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2	성찬주일 월초새벽기도회(1) 피택자교육(7)
9	믿음의어머니기도회(11) 구역예배(14)
16	창립기념주일 임직식, 식사교제
30	이삭줍기주일

『교회 생활』	『교회 등록』
2006년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3주간 예배,찬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금 5:55	청년부:토 오후 5시

- 1.교우소식
 <출산> 박지경 성도(이지형 집사). 지난 주일(9일)의 딸 출산을 축하합니다.
- 2.오늘은 『교회창립7주년감사주일』과 함께 임직식을 갖습니다.
 *오래전부터 단단히 준비한 마음도 없이, 거창한 비전도 없이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 의지하며 드린 첫 예배였습니다. 이후에도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흘러가며 부흥하는 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3.식사친교. 예배 후 창립기념감사와 임직기념으로 임직자들께서 준비한 식사로 오랜만에 식사를 나누겠습니다.
- 4.성전건축을 위한 헌금
 *어젯 밤 11시경, 자신이 하는 사진촬영으로 교우들의 여권사진등을 찍어 드리고 모든 이익금액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싶다며 사무실로 찾아온 청년을 배웅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얗게 밤을 세운 설교준비의 밤 내내 감동과 행복이였습니다.
- 5.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7:30분.민수기강해>
 *성경공부는 어떤 과정을 이수하는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마치며 책걸이 하는 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 6.새벽기도회 <금요일 새벽5:55분>
 *시인은 새벽을 "꽃밭에서 이슬을 굴리고 어린 양을 풀밭에 내어 놓고 숲속에 종을 울리는 참으로 너는 부지런한 계집애다" 고 하였습니다. 이슬처럼 양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리는 새벽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착한 시인▶ 미역국 서정홍

오늘따라 미역국을 맛있게 끓였다고
 아내는 이집 저집 나눠주기 바쁘다

 짬조름한 바닷내가
 기분 좋게 나는 미역국을
 이집 저집 다 나눠주고
 씩 웃는 아내는 바쁘다
 싱겁거나 짜지는 않을까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지
 내일 시험치는 애들 있으면 어쩌지
 더 이상 나눠줄 것도 없는 아내는
 이래저래 걱정이다
 나도 덩달아 걱정이다
 우짜노
 미역국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교회생일이어서 미역국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마움을 켜켜이 담아 이집 저집 나누어 주며 그동안 교회지켜 내기에 얼마나 힘들었냐는 인사까지 덤으로 얹혀주고 싶습니다.
 우리교회라고 붙들며 사는게 쉬운일 같아도 부침이 심한 이 민생활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들의 교회에서 믿음이 자랐는지, 섭섭함은 없었는지 물으며 더 행복하게 믿자고 어깨라도 두드리며 축하 나누고 싶습니다.